

즉시 보도용

2025년 11월 25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최근 폭우로 **55억 갤런** 이상 빗물 포집... 연간 **6만8천** 가구 이상에 공급 가능한 양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비가 많이 내린 11월을 지나며, LA 수도전력국(LADWP)이 2025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포집한 폭우량이 약 55억 갤런, 연간 6만 8천 가구의 물 사용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도시가 꾸준히 투자해 온 빗물 포집 인프라 덕분에 최근 내린 폭우를 지역 수자원 확충과 도시 회복력 강화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시 전역의 대비 노력과 주민들의 경각심 덕분에 지난주 폭우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는 없었고, 내린 비 한 방울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스 키뇨네스 **LADWP** 최고 경영자 겸 수석엔지니어는 “이번 성과는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가 추진해 온 빗물 포집 투자와 인프라의 성공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물 미래를 위해 2035년까지 연간 **489억 갤런** 규모의 포집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LADWP는 수자원 확보 전략의 중요한 측으로 빗물 포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빗물 인프라, 가정용 빗물통과 저장조, 터헝가 지하대수층과 같은 대규모 확산지 등을 통해 빗물을 모아 지하수로 재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장된 지하수는 정수 과정을 거쳐 가정용으로 공급될 수 있다.

현재 LADWP의 빗물 포집 시설은 연평균 8만 3천 에이커-피트(약 270억 갤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포집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은 하천, 강, 빗물 배수로를 통해 태평양으로 흘러간다. LADWP는 대규모 확산지 개선 사업과 녹색도로-레인가든-빗물통을 활용한 소규모 프로젝트 등 다양한 빗물 포집 방안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빗물 포집 방법

LADWP 이용자는 빗물을 직접 모아 조경 용수로 활용해 식수를 절약할 수 있다. LADWP는 최소 50갤런 저장이 가능한 빗물통에 50달러, 200-1,000갤런 이상의 저장조에 300-5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관련 정보는 LADWP 빗물 포집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우 대비를 위한 도시의 준비 조치

1월 산불 이후 배스 시장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시 공공사업국 인력을 파견해 식생 제거, 보강 구조물 설치, 사면 안정화 작업 및 잔해 제거를 지시했다. 이 예방 조치들은 퍼시픽 팔리세이즈 일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모래주머니와 1만3천피트에 달하는 K-레일이 포함된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 LA소방국(LAFD)
 - 주정부와 협력해 산사태-급류 위험에 대비한 자원을 사전 배치
 - 22명으로 구성된 스트라이크팀 및 5대의 타입3 장비
 - 브러시 순찰 유닛 6대
 - 27명 규모 수작업 대원
 - 불도저 및 로더
 - 헬리콥터 1대 및 크루
 - 급류 구조팀 3팀
 - 도시수색구조(USAR) 요원 6명
 - 콜 증가에 대비해 메트로 통신센터에 디스패처 2명 추가 배치
- LA수도전력국(LADWP)
 - 정전 가능성 대비 및 수요 대응 준비 완료
- LA노숙자서비스국(LAHSA)
 - 노숙인들에게 폭우 정보-안전 물품 제공
 - 호텔 바우처 제공
- 도로국-교통국-엔지니어링국
 - 도로 영향 대응 및 산사태 위험 지역 상시 모니터링
- 위생국
 - 하수도 시스템 감시 인력 확대
 - 팰리세이즈 지역 18개 토사 저류지를 정기적으로 정비해 빗물 흐름 확보

###